

# 복귀 앞둔 이재명, '야권 분열 책임·친명 자객 출마' 과제 수두룩

### 이 대표, 이르면 이번주 복귀 전망...과제 산적 당무 놓은 사이 비명계 줄줄이 탈당·창당 선언 제3지대 급물살 맞물려 공천 내용 분출 우려

흥기 피습 후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를 앞둔 이 대표 앞에 야권 분열과 공천 내용 수습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14일 이 대표가 흥기 습격 사건으로 당대표실을 비운지 13일만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결사체 '원칙과상식' 김종민·이원욱·조승천 의원 등 반명 인사들은 줄줄이 당을 떠났다. 이들은 앞서 수차례 당 쇄신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탈당했다.

특히 원칙과상식이 탈당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소통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탈당한 당일 오전에도 이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습격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만 냈다.

원칙과상식 한 의원은 "탈당 발표 직전 홍의표 원내대표가 그제서야 이 대표와 대화를 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게 전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침묵 속 친명계 인사들의 난도질만 있었을 뿐, 누구 한명 그들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며 야권 분열 사태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렸다.

민주당의 탈당 러쉬와 동시에 제3지대 연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원칙과상식은 정의당·국민의힘 출신 의원들과 함께 '미래대연합'을 창당, 늦어도 내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대연합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전 대표 측도 독자적인 창당 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대연합·이준석 신당 등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논의를 이어가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세력화에 성공할 경우 '30%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파색이 열린 한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가) 탈당하는 순간 관계도 끝이다. 더 이상 그

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며 "탈당한 세력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왜 그랬냐며 따지고 들게 아니라 민주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무 복귀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출마도 논란이다.

미투 논란이 있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 올해 4·10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전남 경기 안산 갑골시민회에서 '당원이 주인이다'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비명계 전향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의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도 지난 6일 서울 은평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월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올랐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박광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경기 수원 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비례대표의 비명계 현역 지역구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구에, 김의겸 의원은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도전장을 냈다.

제3지대 세력화 논의와 맞물려 당내선 민주당 내부선 후보 심사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 및 자격 심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후보 공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그간 누적된 친명·비명 계파 갈등이 분출할 것이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임원한 사이 공관위가 출범하는 등 모든 작업 준비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공천 작업이 일사천리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당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 공관위가 본격 가동되는 이번 주 복귀할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희면기자



## 화순군의회, '열린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1일, 12일 동화나라어린이집 원아(5세~7세) 46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의회 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원아들은 본회의장에 앉아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회 소개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은 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원아들에게 설명한 후 군의회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군의회 견학에서 어린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미래에 자기 꿈을 향해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어린이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379-5932)으로 하면 된다.

최순=박수철기자

## 한 총리 "올해 대한민국 재도약 전환점...수출 회복, 내수활력 확산"

### 올해 첫 고위당정... "정부, 재도약 발판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인구·기후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이끌고 물가도 2%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주의, 미중간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적 복합 위기 상황을 열거하고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역대 3위 수출액을 기록했고,

물가(상승률)는 연초 5%대로 출발했지만 12월 약 3% 초반까지 하향 안정화됐다. 평균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62.6%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 취업층 20대 후반의 청년고용률도 71.3%로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정운영 성과를 당정이 협의하고 또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전으로 올라온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설에는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한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기간 국민 안전과 수송대책도 면밀히 마련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국



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소통과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